지역 메아리

정읍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박차

정읍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는 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소 조사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며 해당되는 시민들은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184억원 투입

정읍시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경장활동 편의를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 농작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꾀해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104개소의 28.5㎞의 용배수로 정비에 53억원을 투입하고 46억원을 들여 166개소 40.9㎞의 농로를 포장한다.

또한 41억원을 들여 104개소 32㎞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4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간이 양수장 2개소와 중형 관정 40공을 개발한다.

더불어 ▲15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원 ▲대형 관정과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에 7억7000만원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고 ▲1억8000만원을 들여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새만금 내측 개발 문제 함께 풀자"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자유발언서 물고기 떼죽음 사태 문제점 지적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은 "새만금 내측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부안 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도 아무런 대책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부안군 행정이 야속하기만 하고 마음이 터지도록 답답해 새만금 내측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군민 모두가 함께 알고 풀어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새만금 내측 우리동네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지난해 12월 새만금 내측에 엄청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을 숨기려 하였는지 사람을 동원하여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여 이 물고기가 만약에 새만금 내측 수질오염으로 폐사하였다면 부안앞바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수유통만 되었더라면 이 고기들은 깊은 바다로가 겨울을 나고 올 봄 산란을 하려고 칠산바다로 올라와 부안 앞바다에서 산란, 자란 고기들은 부안군 어민들에게는 생업에 도움이 되는 큰 소득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내측 어민들의 하루하루 생계가 막연한 실정으로 2006년 4월 21일 끝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내측 항 포구에는 643척의 어선이 남아 부안군에 등록된 어선 284척과, 미등록 어선 115척까지 포함하여 총 399척의 부안 군민 소유의 배가 조업을 중단하고 갈 곳이 없어 새만금 내측에 2년 동안 정박해 부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항마저 상실되어 내측에서 조업을 중단한 채 500여 명의 어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는 딱한 실정에 놓여 가력항 확장공사 마무리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된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예산도 통과하지 못해 어민들은 언제까지 새만금 내측에 배를 묶어놓고 이대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하루 속히 가력항 확장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요구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군민 중심 자발적이고 창조적 활동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 1월부터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군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을 연계토록 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고창군이 지난해 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운영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19일 센터 사업계획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홍보와 교육 및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을 통해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내년도부터 센터 내부의 역량강화와 마을 및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주도의 정책사업 추진에서 탈피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수 동해피해 대책 당부

올해 지속적인 한파로 일부 지역의 과수 동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과원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읍지역 1~2월 기상은 전년에 비해 4℃ 이상 낮았고, 최저 기온이 -15℃ 이하로 하강한 일수가 4일(최근 3년간 2016년 1일)을 기록했다.

또 -10℃ 이하 지속 기간에 풍속이 5m/sec 이상 부는 날이 많아 동해 피해가 예상된다.

과수 동해 발생 한계 온도는 복숭아와 포도, 단감은 15℃, 사과와 배는 25℃ 이하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읍 산간부 지역의 복숭아와 단감 등 일부 과원에서 동해 발생이 우려되며, 과수의 수액이 이동하는 3월 상순 쯤 되어야 피해가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읍 일부지역 복숭아와 단감 등에서 신초(新梢) 고사 피해가 관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동해 피해율이 복숭아 0.64%, 사과 0.44%, 배 0.29%, 포도 0.07%로 발표했다.

과수의 수피(樹皮) 터짐, 꽃눈 고사, 가지 마름 등이 주요 증상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정시기를 늦추고, 꽃눈을 20~30% 정도 더

남기고 전정해야 한다.

또 고무 밴드로 주간부(원줄기) 묶기나 신문으로 감싸기, 백색 페인트 도포 등을 토해 동해 부위 파열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해충인 나무좀 등의 방제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SNS · 블로그로 알찬 고창 여행 소개

고창군 스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은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답사하여 당일코스 또는 1박2일 코스로 SNS와 블로그에 상세히 전해 주는 여행기자단이다. 군은 여행에 관심 있는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여 스마트 관광 홍보단 18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선발된 기자들에게는 고창군 여행기자증을 수여되었으며 올해 운영방안과 월별 답사일정을 설명하고 이어 기념촬영 등을 진행하며 발대식을 마쳤다.

고창군의 관광 홍보를 위하여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게는 고창군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솔직하고 참신하게 전달하여 '한국인의 본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널리 알려 관광객들에게 보다 알찬 고창여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석한 여행기자는 "발대식에 참석해서 보니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다"며 "앞으로 고창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맛집, 이야기거리를 찾아 재미있게 전달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형식적인 소개가 아닌 고창군 주요 명소들에 내재된 스토리를 찾아 새롭게 조명하여 많은 분들이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길수 고창부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펼쳐

민간다중이용시설 ·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등 현장점검

고창군이 다음달 30일까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면서 안전 고창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길수 부군수도 연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부군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인 고창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민관합동 점검기동반과 함께 건축, 가스, 전기, 소방분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꼼꼼한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휘부 및 간부공무원 주 2회 이상 현장행정 실시와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